

 해외건설협회 <small>International Contractors Association of Korea</small>	2024년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회의 ['24년 1차 해외건설정책자문위원회] 결과보고	정책연구센터
		2024.7.16(화)

□ 개요

- (일 시) '24년 7월 11(목), 15:00 ~ 17:00
- (장 소)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
- (참 석)
 - 국토부(5) 장관, 건설국장, 해외건설정책과장, 해외건설지원과장, 해외도시개발지원팀장
 - 협회(2)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 기업(12) DL, GS, SK에코플랜트, 대우, 두산, 삼물, 삼성 E&A, 쌍용, 포스코, 한화, 현대건설·ENG
 - 유관기관(4) KIND, 수은, 무보,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 안건

- ❶ 상반기 수주지원단 성과 및 향후계획(국토부, 건설국장)
- ❷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국토부, 해정과장)
- ❸ 그린에너지(원전포함) 글로벌 동향(에경연), 우리기업 진출 동향(해건협)
- ❹ 기업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참석기업, 각 4분)

< 세부 진행순서 >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개회 및 환영사	회장
15:05~15:10	5'	인사말씀	국토교통부장관
15:10~15:17	7'	상반기 수주지원단 성과 및 향후계획	국토부
15:17~15:32	15'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15:32~15:40	8'	그린에너지(원전포함) 글로벌 동향(5') 그린에너지 우리기업 진출동향(3')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건설협회
15:40~16:50	각 4'	기업별 애로사항 및 건의	참여기업 및 유관기관
16:50~17:00	'10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단체 촬영	장관님, 참석자 전원

□ 주요 내용

○ 안전 발표*

* 세부 내용은 발표 자료(별도 첨부) 참고

- (안전 1) 상반기 수주지원단 성과 및 향후 계획(국토교통부 김상문 국장)
- (안전 2)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국토교통부 최신행 과장, 대외비)
- (안전 3) 그린에너지(원전포함) 글로벌 동향(에정원 이호무 본부장, 글로벌 그린에너지 시장 및 우리기업의 진출동향(해건협 정창구 단장)

○ 회장님 개회사

-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회의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회원사와 유관기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자리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우리 해외건설 기업은 현재 고물가, 고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에 맞서고 있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등 사업 대형화, 투자개발형 확장 등 각종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건설 체질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액을 보면 155.8억불로, 전년 동기 172.9억불의 90.1퍼센트 수준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5개년 상반기 평균치인 144.3억불 대비 8퍼센트가량 증가하며 수주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함
-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오늘 회의를 통해 해외건설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정부·기업·기관 간 심도 높은 토의와 함께 민·관·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길 바램

○ 장관님 인사말씀

-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과 함께 해외건설 수주지원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기쁨. 우리 기업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해외건설 업계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 현재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무역주의에서 각국 정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가 진출해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거대함.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함
-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파나마, 최근 중앙아시아 3개국 대통령 순방 수행에 이어, 지난주에는 대통령 특사로 파나마를 방문하고, 수주지원을 위해 모로코를 방문하는 등 우리 기업 수주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하였음
- 이번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원팀코리아 플랫폼을 강화하고 그린 전환, 수익성 강화 등 우리 해외건설의 도전 과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여 업계 분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로 활용하려 함

○ 참가자 발언*

- * 발언 순서 : ①현대건설→②삼성물산→③대우건설→④GS건설→⑤현대ENG→⑥한화건설→⑦삼성E&A→⑧SK에코플랜트→⑨DL이앤씨→⑩두산에너빌리티→⑪포스코이앤씨→⑫쌍용건설→⑬수출입은행→⑭무역보험공사→⑮KIND→⑯해외건설협회→⑰플랜트협회

※ 기업별 애로사항은 볼드처리함

- 현대건설(윤영준 사장)

- 해외 대형사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민간 단독으로 수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지속적인 원팀코리아 지원(정부·공기업·정책금융 등)을 적극 요청함
- 동유럽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불가리아 원전 사업 후속으로 원전 해체, 에너지 저장 시설, SMR 등 많은 사업 기회가 관측되고 있음. 이러한 수주가 기대되는 동유럽 등 선진시장에는 국토관 추가 파견을 건의드림

- 삼성물산(오세철 사장)

- 현재 삼성물산은 지역 다각화를 위해 신시장 진출에 집중하고 있음. 신규 사업개발 등 초도진출 시 국가의 역할이 크며, 주로 KIND, 수출입은행 등에서 운영하는 K-FUND가 큰 힘이 됨. 다양한 해외건설 지원 펀드 관련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요청함

- 대우건설(백정완 사장)

- 해외건설 수익성 개선과 수주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음. 내부적으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 사업(도시개발, 원전, 에너지) 중심으로 추진 중임.
- 신규국가 해외 부동산투자개발 사업추진 시 관련 실적 및 자산이 없어 신용평가서 제출 시 애로를 겪고 있음. 민간이 부족한 신용을 공기업 등 공공 부문과 공동 진출을 통해 공공에서 커버해 주면 도시개발 사업추진 시 시너지가 있을 것임

- GS건설(허윤홍 사장)

- 당사는 주력 지역인 사우디, 호주에 집중함과 동시에 미래 기회로 분류되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단우드社 활용)과 다양한 지역에서 주택, 물류센터, 스마트시티 등 개발사업을 진행 중임.
- 개발사업 중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10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현지 정부와 논의 중임. 투자개발 사업에는 대규모 초기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현대엔지니어링(홍현성 대표)

- 민간기업의 초도진출 시 정부의 주도로 민간부문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지속적인 G2G 사업 지원을 건의드리며, 알제리 등 국제적인 계약 조항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 내 사업 시 민간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증가되었음. 국내 ECA 금융 기반 사업 참여 조건에 한국 기자재 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 콘텐츠 참여 관련 제도화를 건의드립니다

- 한화 건설 부문(김승모 사장)

- 신도시 사업 등 해외 개발사업 추진 시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 IS 사태, 유가 변동 등 단일 기업이 관리할 수 없는 대외적 리스크에 노출됨. 사업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되는 경우 각종 수수료로 인해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함

- 삼성E&A(나창흠 부사장)

- 금일 회의 발제 주제인 그린에너지와 삼성 E&A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인 청정 수소·암모니아, 탄소포집, SAF(지속가능항공유)가 맞닿기에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함. 국토부 및 유관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오늘 같은 기회가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함

- SK에코플랜트(백한솔 부사장)

- 당사는 투자개발형 사업, 환경 사업, 그린 암모니아·수소 사업에 집중하고자 함. 현재 6개의 SPC를 운영 중이며, 수은·무보에서 지원해준 PF가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현재 해외건설 시장 여건을 보면 사업이 대형화, 패키지화되고 있으므로 한 회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따라서, 정부, PF 담당 ECA 등이 동반된 원팀코리아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DL E&C(어준 본부장)

- 당사는 도급사업보다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음. 또한, CCUS, SMR 등 추진 중으로, 연말에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음. 민간에서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금융역량으로 K-ECA, KIND 등의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꾸준히 지원된다면, 경쟁력 있는 상품구성으로 해외 진출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두산에너지빌리티(김봉준 전무)

- 당사는 미래 신재생, 원전, 풍력, 수소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 하고 있으며, 관련 기자재 R&D·공급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 현재 해외건설 시장의 상황을 보면 해외에서 요구하는 납기가 짧아지고 있음. 국내 실증 → 해외 진출의 프로세스가 어려울 수도 있음.

- 건의 사항은 총 두 가지로 ①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외 투자개발 사업 등 타겟 국가를 선정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② 그린수소 사업, SMR 등 초도진출 시 G2G 관점에서 패키지 투자까지 검토된다면 기자재 등 동반 진출이 가능하여 한국 해외 건설 전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

- 포스코 E&C(온상용 전무)

- COVID-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건설사가 사업수행 여건이 많이 어려워짐. EDCF 사업 규모와 예산 확대가 필요함. EDCF 관련 사업추진 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지 랜드마크 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쌍용건설(우상희 본부장)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시장개척지원사업(최대 3억원)의 규모를 확대해주시길 요청함

- 한국수출입은행(정순영 부행장)

-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우리 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EDCF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중 KIND의 대주주 불가 규정을 폐지하여 대주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매우 공감함

- 한국무역보험공사(정재용 본부장)

- 투자개발형 사업, 그린에너지 등 지원을 위해 사전 금융한도 확대 등을 고민하겠음. 또한, 저개발국 등 신용도가 좋지 않은 국가의 프로젝트 개발 관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강훈 사장)

- KIND는 민간기업과 같이 해외사업에 지분투자를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14개 국가, 25개 프로젝트에 9천억원 정도의 투자를 약정하였고, 3천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음
- 직접투자 외에 PIS 2단계 펀드(1조 5천억) 조성, 녹색 인프라 해외 수출지원 펀드(4천억 규모, 환경부)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또한, 타당성 조사 지원이 있으며 컨설팅 지원은 최대 10억까지 자금지원 방식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함
- 직접 투자하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고 사채발행을 통해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음. KIND가 PPP 사관학교가 되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해외건설협회(박선호 회장)

- 현재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유형이 과거와는 다르게 단순 도급형 사업부터 완성도가 높은 투자 사업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짐. 관련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을 담당하시는 ECA 기관에서 기존 지원 상품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플랜트산업협회(김창학 회장)

- 현재 플랜트 시장을 보면 유럽·일본·미국 EPC 기업들이 경쟁력이 잃어가고 있고, 인도·중국 회사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어 실제 우리 기업의 수주 여건·환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저금리 기조 전환 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
-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사업수행 측면에서 대외적인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개별기업 입장에서 리스크 헤지가 불가능할 수 있어 관련된 정부 차원의 G2G 지원이 필요함

- 플랜트 업계의 고민을 정리해보면 ① 물가 보상, 설계변경 등이 어려운 LumpSum Turnkey(LSTK, 일괄도급 계약) 계약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② EPC 건설사업을 수행할 미래 인재 확보가 중요하며. ③건설 신기술 개발 관련 스마트 건설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사 간 기술 공동개발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임

○ 마무리 발언

-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수출입은행 해외 수출지원방안 등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목표한 연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1조불, 올해 목표 400억불 달성이 가장 중요할 것임.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을 부탁드립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기업들의 신시장, 새로운 분야 진출을 위해 인프라공기업의 신용보강,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등 다양한 구조의 협력을 위해 원팀코리아 플랫폼 등으로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원팀코리아 플랫폼을 활용한 선도사업 선정 및 지원도 고민하고 있음.

□ 향후 계획

- 내·외부 자료 공유 및 금년도 해외건설 정책 수립 및 지원 시 관련 자료로 활용

- 정책연구센터 정문빈 대리 -

- 붙임 : 1. 참석자 명단
2. 참석자 명함
3. 간담회 사진. 끝.

붙임 1
참석자 명단

구분	기업명	성 함	직 함
기업 (12개사)	DL이앤씨	어 준	본부장
	GS건설	허윤홍	대표이사
	SK에코플랜트	백한솔	부사장
	대우건설	백정완	대표이사
	두산에너지빌리티	김봉준	전 무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삼성E&A	나창흠	부사장
	쌍용건설	우상희	본부장
	포스코이앤씨	온상웅	본부장
	한화 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이사
	현대엔지니어링	홍현성	대표이사
정책금융	한국수출입은행	정순영	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정재용	본부장
정 부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 관
		김상문	국 장
		진명구	정책보좌관
		최신형	과 장
		천재민	과 장
		황세은	팀 장
공기업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강훈	사 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호무	본부장
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김창학	회 장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 장
		김운중	본부장
		정창구	단 장

붙임 2

참석자 명함

홍 현 성
대표이사



0305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별관
T 02-2134-1000
M 010-7331-0905 / hshong@hec.co.kr
www.hec.co.kr / www.hillstate.co.kr



김 창 학
회장

한국플랜트산업협회

061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재일빌딩 9층(역삼동)

T 02-3452-6615
F 02-3452-6616
M 010-3648-2153
E chairman@kopia.or.kr
www.kopia.or.kr



SAMSUNG E&A

나 창 흙
부사장 / 본부장
Supply Chain Engagement본부



02.2053.3949
010.5918.3919
changheum.na@samsung.com

05288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과장

천 재 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Tel 044-201-3526 Fax 044-201-5547 Mobile 010-8417-1219
E-mail umhnm99@korea.kr www.molit.go.kr

오재민
Eo, Jun

본부장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사업본부

+82 (0)10 9361 1473
+82 (0)2 2011 8788
eojun93@dienc.co.kr

DI엔씨



해외본부장 / 전무이사
우 상 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신천동) 우)05510
M 010-2973-4447
T 02-3433-7098 E-mail shwoo38@ssyenc.com

The
PLATINUM

PRUGIO

백 정 완
대표이사 / 사장

대우건설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T 02.2288.2700 M 010.8911.5862
jungwan.baek@daewoocnc.com

Your Dream, Our Space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기업



윤 영 준
대표이사 / 사장

03058 서울시 종로구 용곡로 75 현대빌딩
T 02-746-2000 F 02-746-2004
M 010-8585-7626 E yjyoon@hdec.co.kr
www.hdec.kr / www.hillstate.co.kr

THE
H

SK **에코플랜트**
담당직원
Global Solution사업
010 3702 0347
hspalk@sk.com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 / 본부장
선임연구위원
경영공학박사 **이 호 무**

M. 010-5206-4095 E. hmlee@keei.re.kr
T. 052-714-2279 F. 052-714-2026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5-11



김 승 모
대표이사

(주)한화/건설

0454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한화빌딩
TEL 02.729.4700 FAX 02.729.4703 MOBILE 010.2801.4610
E-mail seungmo@hanwha.com www.hwenc.com

"명칭하고 청명한 공학사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www.keei.re.kr

삼성물산주식회사 건설부문
SAMSUNG C & T CORPORATION
Engineering & Construction Group

T +82-2-2145-5312
F +82-2-2145-5400
M +82-10-8859-9771
sechul_ch@samsung.com
www.secc.co.kr

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
삼성물산주식회사
Samsung C&T,
26, Sangil-ro 6-gil, Gangdong-gu,
Seoul, 05288, South Korea

삼성물산주식회사 건설부문
SAMSUNG C & T CORPORATION
Engineering & Construction Group

T +82-2-2145-5135
F +82-2-2145-6399
M +82-10-5218-6806
nurse@samsung.com
www.secc.co.kr

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
삼성물산주식회사
26, Sangil-ro 6-gil, Gangdong-gu,
Seoul, 05288, Korea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사무관
정 원 림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Tel 044-201-3520 Fax 044-201-5547 Mobile 010-6634-8601
E-mail gardenlim@korea.kr www.molit.go.kr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청년인턴
김 나 형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Tel 044-201-3523 Fax 044-201-5519 Mobile 010-9452-0999
E-mail nana20001@gmail.com www.molit.go.kr



건설정책국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
팀장
황 세 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Tel 044-201-4420 Fax 044-201-5547 Mobile 010-2275-6140
E-mail senn@korea.kr www.molit.go.kr



허 윤 홍
Yoon Hong Huh
CEO | 대표이사 사장



GS E&C
33, Jung-ro, Jangno-gu, Seoul, 03159, Korea
T. 82-2-2154-5000
M. 82-10-8112-8112
huhyh@gsenc.com

posco
포스코이앤씨

서 준 석 포스코이앤씨
인프라사업본부 친환경사업팀장
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Tel 032-748-2550
Mobile 010-3251-0451
E-mail junerock@poscoenc.com

posco
포스코이앤씨

온 상 웅 포스코이앤씨
인프라사업본부장 / 전무
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Tel 032-748-2016 FAX 032-748-4003
Mobile 010-4826-8196
E-mail onseaw@poscoenc.com



SAMSUNG
C&T
삼성물산

오 세 철 Se Chul Oh
대표이사 사장
President & CEO



SAMSUNG
C&T
삼성물산

지 형 근 HYUNGKEUN CHI
실장 / 부사장, 전략사업실
Executive Vice President / Head of Div
Strategy Bld. Division



사진1.



사진2.